

새정부에 바란다

광주·전남 흠대·낙후 딛고 대한민국 이끌 중심으로

61인의 소망 ▶4·5면

2013년 새해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호남 흠대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광주·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정부 지원과 호남 인재 배제로 인해 낙후를 면치 못했다. 대통령과 대담평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호남의 기대가 작지 않은 이유다.

지역민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져 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유치, 지역인사 적재적소 기용 등을 통해 올해를 광주·전남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나서는 원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지역민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47.5%(광주)와 20.7%(전남)로

각각 전국 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 열악한 재정환경을 반전시키고 앞으로 먹을거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미래성장동력산업이다.

지역에선 광산업과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이 육성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산업구조 고도화추세에 맞춰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선 클린디젤자동차산업과 3D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전남의 코리아1경주대회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전남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매년 적자대화로 처리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역시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발목 잡기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광주를 전세계에 알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 등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관심 부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서 도심 공동화 및 인구 노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적절한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적은 탓에 지역 젊은이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로 떠나버린 때문이다.

전남은 이미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광주 동구와 목포 원도심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은 인구가 줄고 빌딩 공실률이 급등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외지 기업유치의 한계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을 장려해 고용을 창출해줄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호남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타당인사를 펼쳐 줄 것도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급에 호남 인사가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며 정부 부처 고위직에서도 호남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찰·검찰인사에서도 호남은 반박됐다. 이런 까닭에 지역 주요 국제사업이나 현안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호남 인재 등용은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타지역과의 갈등·경쟁을 원만히 조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선되면 대담평 인사를 통해 호남 소외를 없애고 동서화합을 이루겠다고 한 박 당선인의 약속을 지역민은 주목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아시아 문화원류전시 조성사업의 기틀을 다지게 될 새 해가 밝았다. 광주일보사는 아시아의 신화, 전설, 민담 등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시리즈 제3부를 인도에서 시작한다. 지난 30일 인도 바라나시(Varanasi) 갠지스강 중심 가트(Ghat) '다사스와메드'(Dasaswamedh)에서 열린 '아르티 뿌자'(Aarti Pooja·쉬바 여신에게 바치는 제사에 참여한 주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고 있다. /인도 바라나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3탄 인도편 ▶14면

세계 최장편 서사시 등 이야기 무궁무진

인도 바라나시=임동률기자

"인도가 있어버린 땅에 왔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 작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1927년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외쳤다. 인도의 세계 최장편 서사시 '라마야나'를 차용한 무용극과 인형극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공연되고 왕가의 저택에 라마의 그림이 걸려 있는 모습은 그를 흥분시켰다. 타고르는 '훌륭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지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서양의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에 비견되는 '라마야나'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태국 등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 그 흔적을 남겼다.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인젠가 '라마야나'나 또 다른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를 영화로 찍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양의 문화 자원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재탕, 삼탕'의 그리스·로마신화는 진부해졌고, 할리우드는 첨단 컴퓨터그래픽기술로 만화를 영화로 옮기는 데 주력할 뿐이다. 이병훈 아시아문화경제원 원장은 "대안은 넘쳐나는 아시아의 문화자원"이라고 단언했다. 아시아 각 나라의 설화부터 디자인 요소까지 아시아 문화가 부상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야기의 실을 엮어 촘촘한 뜨개질로 '아시아 문화의 틀'을 짜고 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가 태동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류와 창조 플랫폼이 될 것을 꿈꾼다.

광주일보사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시대'의 열쇠가 되기를 염원한다. 지난해 창사 60주년을 맞아 연재를 시작한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새해 인도로 떠난다.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이야기가 숨쉬는 인도 곳곳을 둘러보고, 인도인들

의 삶과 문화를 집중조명할 예정이다. '라마야나'는 2만4000시절로 이뤄진 세계 최장편의 서사시로, 코살라 왕자 라마의 파란만장한 무용담을 담고 있다. 인도인에게 정절의 화신인 왕자비 시타와 효의 상징 동생 바라타, '서유기'의 모태가 된 원숭이 신 하누만의 활약 등 무궁무진한 이

이야기의 원천이다. 라마야나와 더불어 인도 문명의 두 기둥으로 불리는 '마하바라타'는 고대 인도의 지혜와 상상력을 모은 백과사전이다.

12억 인도인의 역사와 종교, 삶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길 기대한다.

/exian@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엠블럼 확정



올해로 창사 61주년을 맞는 광주일보가 기념 엠블럼을 확정했다. 엠블럼은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한다'는 이순(耳順)을 넘어 새로운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시작하는 광주

일보의 각오와 의지를 형상화했다. 광주일보의 테마 컬러인 녹색과 바람의 상징인 청색을 사용해 과녁(6자)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는 화살(1자)을 표현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신을 담은 이 엠블럼은 올해 회갑(回甲)을 맞는 광주일보의 모든 기념사업과 특집기사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제작=광주여대 미술치료학과 이만경 교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光州日報 임직원 일동

신년특집 지면 안내

신년 대담.....3면	순천 국제정원박람회.....15면
새 정부에 바란다.....4·5면	'블루골드' 물산업.....17면
차 당선인 호남인맥.....7면	신년 극장가.....18면
새해 광주시정·전남도정.....8면	TV 하이라이트.....19면
2013 지구촌 기상도.....9면	백과 한민족, 운세풀이.....21면
아시아 문화 원류.....14면	신춘문예 당선작.....24·25면

ECO GEO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

광주은행이 2013년 금융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 길에 믿음이 먼저 고객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광주은행이 사람을 향합니다.

2012 다산금융상 수상

2012 일과 가정의 양립 공로 CEO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12 가족친화경영대상 저출산해소부문 대상 수상

2012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2011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사회책임경영부문 2년 연속 대상

2012 대한민국 금융대상 수상